**산중승(山中僧)**

연꽃님~ 교화 활동?         禪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혹시 [入廛收手]란 말을 아십니까? 禪家에서 尋牛道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서, 수행자가 [보리]를 얻고나면, 산을 내려가서 '저잣거리=도시'에 뒷짐지고 누덕누덕 기운 옷입은체 말없이 서있는다는 것입니다.
왜 [손을 뒤로 감추고] 저잣거리 복판에 묵언으로 서있는 걸까요. 세속살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요.
길잃은 중생들이 길을 물어면, 그때서야 길을 가르쳐 주려고' 서있는 겁니다.길을 묻는 者가 답답한 입장이니까
[답답한 者가 물어라. 단, 공손하게 예의를 차리고... . 그러면 답을 가르쳐 주리다]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묻기 전엔 먼저 [설교]따위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계율입니다.
목마른 짐승이 물을 찾으면, 물있는 곳 가르쳐주고/ 길잃은 중생이 길을 물어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수행승'이 할 일입니다. 그뿐입니다. 물을 찾지 않는 소에게 물 먹일수 없고/ 길 묻지 않는 者에게 길을 말해 줄수 없는 것입니다. [중이 해야 할 일]이란 [길 묻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 방법이 꼭 [설교]식의 장광설일 필욘 없는 겁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머리를 끄덕여 주거나, 빙긋이 미소짓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자비행'인 것입니다. 왜?
수행승들이 [나이롱 뽕]으로 道를 얻은 것이 아니고, 수십년 처절한 수행으로 어렵게 깨우친 것인데, 묻지 않는 者들을 찾아다니며 싸구려 물건 팔듯이 [믿셤니까?]를 외칠 이유가 없습니당~

< 설익은 중들이, 속물을 못벗고 세속에 뛰어나가서, 지가 무슨 소리 하는 지자신도 모르면서 시덥쟎은 문자풀이로 구름잡는 소리/귀신 씨나락 까 먹는 소리로 장광설을 하겠지만, 과연그런 것에서 무슨 참도리를 얻을 수 있을찌..>

중들이 왜 산에만 있느냐구요? 본래 세속이 싫어서 머리깎고 산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 그리고 산속이 편하니까.
왜 편하냐고요? 세속의 때가 없는 청정한 곳이니까요. 그리고 답답한 자들은 지발로 찾아와서 길을 물어라는 것일까욤? ㅎㅎㅎ
[어렵게 얻어야만 귀중한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중생심]이 쟎습니까? ㅎㅎㅎ

그리고, [진검승부]라뇨? 그런걸 왜 해야 합니까? 그런 장난질은 '찌질한 者들끼리 '토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징~
수행자는 그딴짓 안합니다. 왜냐구요? 수행자들에겐 '이기고 진다'는 개념이 이미 없어졌으니까욤.
그리고
불교 말살'을 들먹이시는데...불교는 말살되지 않습니다. 다만 잊혀 질 수는 있을찌라도...
즉 우주의 태양은 말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구의 멸망은 있을 수 있을 찌라도.
참다운 진리=아눝따라 삼먁 삼보리'는 아무리 멸하려해도 멸해지지 않는 것이 우주의 도리입니다.
<혹시 중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

만약 불교가 그 인연을 다하여 '말살'을 맞이해야 할 운명이라면 그냥 말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연없는 중생[우빠까]도 붓다를 떠났듯이... 인연없는 세속중생들이 불교를 떠나서 [야훼]한테 가려면 그렇게 하랄수 밖에...
말살?ㅎㅎㅎ 말살 되고 안되고는 [세속중생]이 선택할 일입니다.
세속중생들에게 [불교]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속중생들의 사정이니까 세속인들이 나서서 불교 말살을 막는 노력을 해야하는 겁니다.
출가승려'들이야 모두들 세속인연을 다끊고 산중으로 들어와버린 몸인데 세속인연에 연연할 일 없쟎습니까?

설사 불교가 세속에서 잊혀지더라도, 우리 수행자는 언제까지나 山中에서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목마른 중생들이 답답하면 산중으로 찾아오던지 말던지.. . 값진 山蔘은 깊은 산중에 와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님~은 불교의 참 모습을 아직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삼을 얻고 싶으면 山中으로 찾아오십시요~
단, 山蔘이 있는 山中으로 찾아와야지... 山蔘 없는 큰 관광 사찰에 가봤자 헛걸음이겠지요.
그런곳엔 '무늬만 산삼'이 있을 뿐이지요 ^!^]

자꾸만 [초기불교]를 들먹이시는데, 과연 [초기불교]라는게 있었습니까? 혹시 [원시불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지요. 그냥, 샤카무니'의 설법시대'였을 뿐이죠.
샤카모니 열반하신 후에 10대불제자를 중심으로, [불교적 교리]가 체계화되고,
[불경]이 집대성 된후에 비로소 컬리큘럼이 만들어지면서 [佛敎]라는 宗敎가 성립되어진 것이지요.
그때로 부터 수천년을 지나오면서 [불교]는 진화되어온 것입니다.
즉, 사카무니'께서 확연하게 다 말씀 못하고 가신, 우주의 진리 아눝따라 삼먁삼보리'에 대한 이해 체계가,
그 수많은 히말라야 수행승들과 [대승불교의 중국 불교계]에서 수많은 고승들이 '깨달아 얻은 진리들로서,
불교교리는 엄청나게 진화되어온 것입니다. 감히 초기(원시)불교'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불교는 믿음'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여여하게 있는 우주의 진리]를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無常한 것이고 一體唯心造'인 것입니다.
끝없이 진화하는 교리체계'가 대승적인 현대불교입니다. 아무런 교리체계도 없던 시절의 초기불교'는 종교적인 수준이 아닌, 샤카무니의 개인적인 '깨달음'에 대한 견해 일뿐입니다.

도시사찰/산중사찰 구분이 이해가 안된다구요? 왜 안됩니까?
도시사찰 은 도시 중들의 사찰이고, 산중사찰은 산중수행승들이 살고있는 절집이지요. 그걸 모르남요?
/도시 사판승과 山中 修行僧/은 서로 많이 다릅니당~ ㅎㅎㅎ
그래서 도시사찰 주지는, 보살(여신도)과 산중 중이 오면, 산중 중은 못본체하고/여신도'에게만 반갑게 쪼르르 달려가면서, 마치 꼬리치는 강아지 마냥 [아이구우~ 우리 돈보살님이 오시넹~]한다고 하쟎습네까? ㅋㅋㅋ

산중 중들이 도시 교화를? 왜요? 무엇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기로 세속중생들을 교화 해야 합니까? 그럴일 없습니다. 그런건 도시땡중들에게나 시키십시요.
우리 산중 수행승들은 오직 간절히 불법을 원하는 者에게만 자비심으로 교화 할 뿐입니다.
누구들 처럼 [믿어십쇼~. 믿어야 천국갑니당~]은 절대 안합니다.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님은 [불교]를 [기독교식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네욤?
잡다한 불교상식'에 대해선 박식하십니다만....아직 '禪불교'의 생리를 전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식 사고잣대로 불교를 척도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 그래서야 도무지 불교를 알수가 없는 것이죵~

오늘은 여기서 그만 접겠습니다.     괜히 씰데없는 잡소리로 님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죄송....^!^
[참 우리나라 스님들의 3無현상'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통...?] 옴람~옴람~옴람~